

아직도... 빛가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외면

올해 전력거래소 22명 중 고작 4명만 채용... 권고치 훨씬 못 미쳐 사학연금 등 3곳 소규모 채용 계획... 농기평 등 9곳은 채용 계획 '0'

하반기 공공기관들의 공개 채용 계획이 잇따르면 서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의 채용 일정,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아예 채용 계획조차 내지 못하는 이전공공기관들도 있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밝힌 '2024년 지역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빛가람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17곳은 올해 14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다.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규모(141명)에 견줘 조금 늘어났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게 지역 반응이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혁신도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

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권고치는 지난 2018년 18%부터 2019년(24%), 2021년(27%), 2022-2024년(30%)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한국전력거래소가 오는 31일까지 일반직(전문직) 공개채용에 들어가는 등 9월까지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채용 일정이 진행돼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소규모(5명 이하)에 그치거나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관들도 있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올해 67명의 지역인

재 채용 계획을 밝혔고 한전KPS(45명), 한전 KDN(20명) 등도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제시됐다. 전체 채용 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33-40%로 대부분 정부 권고치를 상회했다. 다만, 규모가 큰 한전 계열사 3사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17개 기관 전체의 88.6%를 차지하는 만큼, 타 기관의 경우 정부 채용 권고치를 이행하더라도 5명 이내로 채용되고 있어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기는 '바늘구멍'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지역인재로 뽑은 인원이 7명에 불과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3명이 전부였다. 사실상 생색내기성 지역인재 채용이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9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계획이 전무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3명) 등도 소규모 인원만 채용한다. 올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을 마무리한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전체 22명 채용 중 고작 4명(18.2%)만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데 그쳤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올해 인재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채용 규모·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공대, 총장 7개월 째 공석...올해 안에 선임되나

8월 중 총장추천위 구성 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총장이 7개월째 공석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총장 선임에 대한 추천위원회 구성 전 마련해야 할 선임 총장 선임 규정조차 없다는 점에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불투명하다. 23일 켄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윤의준

전 총장이 물러난 뒤 박진호 연구부총장 체제(총장 직무대행)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2022-2023년(250억원)과 달리, 올해는 200억원으로 50억원 줄어든 상태로,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리더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지만 대학 운영을 총괄할 총장 선임이 급선무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총장 선임에 대한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 공개모집, 심사, 이사회, 교육부 장관의 동의 및 산업부 승인 절차까지 가기까지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앞서 마련해야 할 총장 선임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켄텍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진행한 뒤 총장 선임 규정 마련을 위해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지난 17일 열린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라 총장 선임 규정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8월 중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선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336MW 용량...공급 불안정 해소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내 최대 규모인 336M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면서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은 23일 "지난 19일 밀양시 나노산단 소재 부북변전소에서 336MW 용량의 ESS를 최초 가압했다"고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한 뒤, 전력부족 등 필요한 시기에 송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치다. 이번 부북변전소 ESS 사업은 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영주·함양·예산·영진·신남원·부북 등 6개 변전소에서 시행된 총 용량 978MW ESS 건설 사업 중 마지막 가압으로, 국내 최대 규모 용량이다. 한전은 이번 가압을 통해 최대 1GW의 발전제약 완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ESS 설비개선을 통한 기술 향상, 공정화와 현장실명회를 활용한 대내외 다각적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또 한전이 보유한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전력설비 신설로 인한 민원 최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ESS와 같은 신사업·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 및 사업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하는 한편,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향후에도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소릉·농공·나주·선산·신영주 등 5개 변전소에 300MW ESS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전력거래소, 공동주택 Auto DR 적용...전기사용량 간편 제어

포스코에너지 등 3곳과 협약 스마트폰 앱 통해 사용량 파악 가능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2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DX, 파란에너지와 함께 공동주택 10만호 자동 수요관리(Auto DR)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Auto DR은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기기의 원격 제어 기술을 통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저점 제도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에너지저점 제도는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급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공동주택 Auto DR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Auto DR이 구축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은 '더샵 AiQ홈'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Auto DR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명·환기·콘센트·냉방 뿐만 아니라 가전사 플랫폼에 연결된 일부 가전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aT, 함평군과 K-푸드 수출 확대 협약

저탄소 식생활 확산 동참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2일 함평군과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K-푸드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저탄소 식생활 동참을 통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농수산물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함평군은 매년 봄 전국민이 찾는 함평 나비축제 등 성공적인 지방자치 사례를 보여주는 지자체로, 이번 협약이 체결된 함평군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양 기관은 ESG 가치를 실천하고, 저탄소 식생활 동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장려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24. 7. 22.(월) 17:30 / 함평군청 소회



전남도에서는 함평군 외에도 전남도청,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나주시, 순천시, 구례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등이 aT와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